

 국토교통부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배포일시	2022. 2. 3.(목) 총 2매	
담당 부서	교통정책총괄과	담당자	· 과장 김정희, 사무관 남승현, 주무관 김민진 ☎ (044)201-3786, 3793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설 연휴 이동인원 5.6% 증가

- **폭설에도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 사망자(16.7%), 부상자(51.6%) 감소**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이번 설 연휴 이동인원이 전년 대비 **5.6%** 증가하였으나, 설날 폭설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사상자는 전년 대비 **16.7~51.6%** 감소하였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설 연휴 총 이동인원은 **2,594만명**(일 평균 432만명)으로 집계되었으며, 오미كرون 확산과 이동자제로 일평균 이동인원이 예측치(480만명) 보다 **10%** 감소하였다.

* 총 이동인원 : 2,594만 명(6일간), ('21년 2,044만 명, 5일간, 27.0% ↑)
 일평균 이동인원 : **432만 명**('21년 409만 명, 5.6% ↑)

○ 고속도로의 경우, 자가용 이용 증가로 총 교통량 및 일평균 교통량이 작년 대비 **1.2%** 증가하였으며,

* 고속도로 총 교통량 : 2,516만 대('21년 2,487만 대, 1.2% ↑)
 고속도로 일 평균 교통량 : **419만 대**('21년 414만 대, 1.2% ↑)

- 특히, 설날 수도권과 서해안에 폭설이 내리면서 고속도로의 정체가 나타나기도 했으나, 설 특별교통대책본부의 사전대응과 신속한 제설작업, 이용자의 협조로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.

* 최대 귀성·귀경시간 : 서울-부산 6시간10분(10분 ↑), 부산-서울 8시간35분(2시간 ↑)

○ 대중교통의 경우, 철도, 고속버스, 항공 이용객은 전년 대비 각 **11.2%, 13.6%, 27.5%** 증가하였다.

* 수송실적(천명) : 철도(1,515), 고속버스(551), 항공(699), 해운(218)

- 고속도로 휴게소, 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방역관리도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로 차질 없이 시행되었다.
 -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 취식금지(포장만 허용), 출입구 동선 관리, QR코드나 간편 전화 등을 통한 출입자 관리 등 특별 방역조치가 철저히 시행되었으며,
 - 많은 귀성객과 여행객이 몰린 철도역, 공항은 수시로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고, 발열 확인 등 방역조치를 꼼꼼히 진행하였다.
 - 특히,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드론,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한 교통단속 및 교통관리 강화에 따라 교통사고 건수, 사망자·부상자 등 인명피해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 - 일 평균 교통사고는 238건*으로 전년대비 약 44% 감소하였고, 일 평균 사망자수**와 일평균 부상자 수도 각각 4명, 319명으로 전년 대비 16.7%, 51.6%로 감소하였다.
- * 사고발생건수 : 총 1,430건, 일 평균 238건('21년 425건, △44%)
- ** 사망자 : 총 22명, 일 평균 4명('21년 4.8명, △16.7%)
부상자 : 총 1,912명, 일 평균 319명('21년 659.2명, △51.6%)
- 국토교통부 어명소 특별교통대책본부장은, “지난 설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방역과 교통안전을 중심으로 마련한 올해 설 특별교통대책이 잘 시행 되었다”고 밝히면서,
 - “오미크론 확산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, 방역 수칙 이행 등 정부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교통정책 총괄과 남승현 사무관, 김민진 주무관(044-201-3786, 379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